

## 李士龍의 춘추대의에 대한 가치와 시대적 의미

金 東 錫\*

<目 次>

- |                    |                     |
|--------------------|---------------------|
| I. 서론              | III. 춘추대의의 화신으로 부각과 |
| II. 전투 배경과 조총수 이사룡 | 후손에 대한 배려           |
|                    | IV. 결론              |

<국문 초록>

조선 후기 사신의 일행들이 북경에 갈 때 심양을 거쳐 산해관으로 가면서, 영원성과 금주성에서 있었던 명청 교체기의 전쟁에 대하여 자주 이야기 했다. 이곳 전투 현장과 연관을 지어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은 李士龍이다.

조선 병사 李士龍은 1641년 청나라 용병이 되어 금주성 전투에 참전했다가 희생된 사람이다. 전투를 하다가 희생된 것이 아니라 전투에서 총[精砲]에 총알을 비운 채 명나라 군사에게 쏘다가 발각되어 처형되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숙종과 현종, 정조, 송시열, 남구만, 박지원, 홍대용, 이공익 같은 사람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회자된다. 특이한 것은 이사룡은 송시열과 정조에 의해 춘추대의의 화신으로 까지 크게 부각된다는 점이다.

이사룡이 운명하고 나서, 죽음과 관련하여, 그의 행동에 대해서는 이미 조선시대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 박지원은 이사룡이 중화사상에 빠져 청나라에 저항하다가 스스로 극단적인 길을 선택한 것처럼 묘사하였지만, 남인인 남구만과 이공익은 조선 병사들이 명나라 군사들에게 총을 쏘려고 하지 않자, 청나라 측에서 이를 문제 삼아 이사룡을 희생양으로 처형했다고 기록하

\* 성균관대학교 사범대학 한문교육학과 초빙교수 / tongxi@hanmail.net

였다.

이사룡의 고사를 두고 빗어진 춘추대의는 이처럼 남인과 노론의 견해가 달랐다. 노론 쪽이 대의명분에 좀 더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숙종과 정조는 춘추대의를 강조하였는데, 공교롭게도 숙종 때에는 당쟁이 자주 발생하였고, 정조 때에는 천주교가 전래되어 남인을 중심으로 천주교도들이 늘어났고, 이에 대한 노론 벽파의 비난이 거세졌으며 정조가 노론의 문체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금주성 전투의 전후 과정과 당시 조선 병사의 분위기, 이사룡이 처했던 상황을 근거로 하여 이사룡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오랜 동안 이사룡이 춘추대의의 상징인 물로 부각된 원인에 대하여서도 분석하려고 하였다.

숙종은 이사룡을 추증하고 후손에게 벼슬을 내렸으며, 정조도 후손에게 벼슬을 내렸다. 정조는 이들에게 묘지명을 써줄 정도로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이사룡을 이순신 장군에 비교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조 이후 이사룡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다. 왕조가 쇠퇴기로 들어서자 국왕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이 춘추대의에 대하여 집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춘추대의는 조선 왕조의 권위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국왕과 집권 세력들 사이에서 중요한 명분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고, 이사룡은 이런 시각에 의하여 상징적인 인물로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李士龍, 錦州城, 精砲, 『열하일기』, 정조, 송시열, 춘추대의

## I. 서론

왕조국가 시대 전란으로 대륙의 질서가 재편될 때마다 한반도는 그 변화에 휩싸였다. 이 사이에 우리의 운명은 바뀌기도 하였고, 또한 그 충격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명칭 교체기 때 금주성은 전략적 요충지였다. 명나라가 錦州城을 잃으면 永遠城 안위를 걱정해야

했고, 영원성을 잃으면 다시 山海關의 안위를 걱정해야 했다. 그리고 산해관을 잃으면 국가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었다.

1644년 청나라가 대륙을 통일하여 전쟁이 끝나자 평화가 찾아 왔다. 그 후 조선 사신들은 이 지역을 지날 때마다 금주성 전투를 언급하곤 했다. 중국에 12차례나 다녀왔던 인평대군은 전쟁이 막 끝난 1656년 이곳을 지나가면서 조선 병사들이 외국에 과병한 것을 슬퍼하였다.<sup>1)</sup>

본고에서는 금주전투에 참전했던 李士龍과 그가 사후에 춘추대의를 빛낸 인물로 부각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사룡은 1612년(광해군 4)에 태어나서 1640년(인조 18)까지 살았다. 본관은 星山이고, 성주에서 살고 있었다. 중화사상을 가진 이사룡은 금주 전투에 병사로 참전하면서 크게 부각된다.

훈련도감에 소속되어 있었던 이사룡<sup>2)</sup>은 명나라 군사에게 총[精砲]을 쏠 수 없어 공포탄만 쏘다가 청나라 군사에게 발각되어 처형된 인물이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조선에서는 이사룡이 춘추대의를 상징하는 인물로 부각되었다. 이사룡은 신분이 낮은 병사이었지만 이사룡 같이 조정과 위정자들 사이에서 오랜 동안 추앙받았던 병사는 거의 없다.

북경에서 홍대용이 청나라 문인들에게 김상헌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룡에 대한 이야기에 이르자 그들은 얼굴빛이 씩씩한 표정으로 바뀌면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sup>3)</sup> 또한 조선 시대 이사룡의 치적을 자주 언

- 1) 李滄, 『松溪集』 卷6, 『燕途紀行』, 9월 8일, “우리나라 將卒들은 비록 청인의 威令에 겁이 나서 부끄러움을 머금고 적에게 나갔다고 하지만, 국가에서 수백 년 동안 養兵한 것이 마땅히 써야 할 때에는 쓰지 못하고, 도리어 쓰지 못할 자리에 썼으니, 아아! 애석한 일이다. [縱使清人威令, 含羞赴敵, 國家數百年養兵, 未用於當用之時, 反用於不當用之地, 嗚呼惜哉!]” (고전번역원 번역을 인용하였다. 논지를 위하여 수정한 곳도 있다. 이하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 2) 宋時烈, 『宋子大全』 卷213, 「傳」, 「砲手李士龍傳」, “李士龍星州人, 以良丁隸兵籍, 崇禎戊寅, 清虜西犯皇明, 嚇索我賦, 自訓局別送精銳, 士龍與焉.”
- 3) 洪大容, 『湛軒外集』 卷3, 「杭傳尺牘」, 「乾淨筆談」 續, “余別以小紙書前後大概, 并及清陰三學士李士龍事, 而示之, 諸人看畢, 皆愀然無語”

급한 사람으로는 송시열과 국왕 정조가 있다. 송시열은 노론 清流로서 대명의리를 계승한 인물이다.<sup>4)</sup> 송시열은 이사룡을 부각시키는데 공을 들였고, 정조는 이사룡을 이순신 장군과 대등하게 평가하려고 하였다. 특히 정조 때에도 여전히 대보단에서 예를 올렸다.<sup>5)</sup> 금주전투에 대해서는 1774년에 출간된 인평대군(1622~1658)의 문집인 『松溪集』에도 언급되고 있는데, 1780년 북경에 간 박지원은 이 자료를 이용하여 자신의 필치로 이사룡을 묘사하고 있다.

이사룡이 참전한 금주 전투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도 논문으로 논의된 적이 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조선 精砲 부대의 병력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조선 병사의 기여가 크지 않았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이 문제에는 반론의 여지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총의 기능과 위력, 당시 전투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도 살펴서 파병된 조선 군사가 승패의 전환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려고 하였다.

이사룡의 처신과 죽음에 대해서는 조선시대 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다. 박지원은 이사룡이 총을 쏘지 않았다고 저항하다가 발각되어 희생되었다고 하였고, 이공익은 당시 파병된 조선 병사들처럼 전투에서 총알을 빼고 쏘다가 발각되어 희생양이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당파에 따라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통하여 그 시점의 파병된 조선 병사의 분위기와 이사룡의 전투 의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 4) 안대회, 「조선 후기 燕行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燕行使를 보내는 送序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19집, 한국실학학회, 2010, p.100.
- 5) 大報壇은 1704년(숙종 30)에 창덕궁 안에 설치한 것으로 임진왜란 이후 明나라 神宗이 도와 준 공을 생각하여 설치한 祭壇이다. 그리고 1749년(영조 25)에 太祖와 毅宗을 合祀한다. (고전번역원 각주 참고: 검색어 대보단)
- 6) 曾磊, 「明清松錦之戰中朝鮮兵的作用」, 『史學月刊』, 河南大學 河南省歷史學會, 2013, “綜合以上論述, 可以得出以下結論: 朝鮮軍雖然參加了明清之間的松錦之戰, 但是由於客觀上兵力太少和主觀上消極避戰等原因, 朝鮮軍在戰場上的表現是差強人意 無足輕重的. 朝鮮文人提出“精炮滅明”論有着特殊的背景, 他們誇大本國軍隊的戰鬥力, 目的是敦促朝.”

## II. 전투 배경과 조총수 이사룡

1621년부터 1637년까지 조선은 해로 사행을 지속하면서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외교를 하였다. 그리고 몇 년 후 마침내 파병을 하는데, 이때 이사룡이 참전한다. 이 전투가 있기 직전에 명나라 원숭환(1584~1630)은 兵部侍郎과 遼東巡撫로 있으면서 영원성을 지키고 있었다. 명나라는 포르투갈 군함에서 노획한 포를 이용하여 개발해낸 홍이포로 누르하치의 공격을 막아냈고 결국 누르하치는 심양으로 패퇴하였다가 후유증으로 죽는다. 이어 등극한 청 태종은 반간계를 써서 원숭환을 제거한다. 그리고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게 되는데, 이때 조선의 용병 이사룡이 참전한다. 조선의 조총부대는 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위력이 있었다.

### 1. 조총과 그 위력

精砲는 임진왜란 때 조선에서 왜구의 조총을 복제하여 개발한 총이다. 이미 1542년에 우리보다 앞서 일본은 포르투갈 선원에게 조총을 전수받았다. 일본에서는 이 조총으로 기마병들을 압도할 수 있었다.<sup>7)</sup> 이후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조선의 전술 형태는 조총에 비중을 두는 전술 형태로 바뀌었다고 한다.<sup>8)</sup> 그러나 병자호란 때 조선의 조총부대는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조총은 분당 2~3회 발사 할 수 있었고, 100미터까지 공격할 수 있었으며, 50미터 이내에 들어오는 기병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고 한다.<sup>9)</sup> 즉 홍이포는 원거리 공격에, 조총은 단거리 공격에 효율성이 높았

7) 한명기, 『광해군』, 역사비평사, 2000, pp.162-163.

8) KBS 역사스페셜, 「조총, 조선의 명운을 바꾸다」편에 언급된 내용이다.

다. 금주성에서 조대수가 포를 설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주족은 금주성을 쉽게 접근하여 공략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1638년부터 금주성을 고립시켜 놓고도 1941년까지 전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금주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진하던 명나라 장수 洪承疇는 초기 승리에도 불구하고 기마병으로 만주족을 압도하기 힘들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조선의 조총부대가 청나라 군대의 맨 앞에 포진하고 있어 명나라의 군대가 기마병을 앞세워 금주성까지 쉽게 지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曾磊의 분석<sup>10)</sup>처럼 조선의 조총 부대의 기여도가 적당한 것은 조총의 위력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 병사의 위력에 대해서는 전쟁 직후 이곳을 지나간 인평대군도 언급하고 있다.

土兵들은 모두 精砲를 가지고 있어 조대수의 군사를 많이 죽였는데, 조대수는 군중에 하령하여 淸兵의 머리 하나에는 은 5십 냥을 주고, 조선 군사의 머리 하나에는 은 1백 냥을 준다 하였다.<sup>11)</sup>

인용된 예문은 박지원이 인평대군의 기록을 인용한 내용이다. 조선의 정포 부대는 동원된 인원이 많지 않았지만 명나라 군사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자 명나라에서 많은 상금을 내건 것이다.

청 태종은 조선 정포부대의 위력을 알고 조선에서 지원 나온 5,000명의 기마병이 쓸모가 없다고 돌려보내면서도 1,500명의 精砲 부대를 남게 하였다. 조선 精砲 부대는 청나라 병사들의 전방에 서서 명나라 기마병을 효율적으로 차단하여 금주성을 고립시키는 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했

9) 구글 (<https://www.google.co.kr>) (검색어: 조총)

10) 曾磊, 앞의 논문. 참조.

11) 朴趾源, 『熱河日記』, 『銅蘭涉筆』, “土兵皆精砲, 祖軍多穢, 下令軍中, 虜頭一顆, 予銀五十兩, 鮮人一級, 予銀百兩” (『열하일기』 내용은 고전번역원 이가원 선생님의 번역을 인용한다. 논지를 위하여 수정한 부분도 있지만 이하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금주전투에 참가하고 있는 조선 병사의 모습. (출전: 바이두)

위의 그림의 수레는 다연발 로켓인 ‘화차 신기전’으로 보인다. ‘화차 신기전’은 1451년(문종 1)에 개발되었고, 임진왜란 때에는 ‘화차 신기전’을 이용하여 행주대첩을 이끌었다.<sup>12)</sup> 당시 금주전투에 용병으로 갔던 조선 병사들의 무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병기를 사용했는지 알 수 없지만 조선의 포병은 총 이외에도 조선의 각종 정교한 무기를 가지고 전장에 임했을 것으로 보인다.

## 2. 금주 전투의 전개과정

전쟁이 끝난 지 140년 쯤 지난 1780년 박지원은 금주성 근처를 지나 갈 때 조선병사 이사룡이 참전했던 전투의 始末을 언급하고 있다. 다음은 병력과 그 이동 시기에 관한 내용이다.

명나라 1638년(송정 11)에 우리나라 장수 李時英이 군사 5천을 거느리고 建州로 들어갔더니 청인은 이시영을 협박하여 앞장을 세우고 명의 都督 祖大壽와 松山에서 싸우게 했다.<sup>13)</sup>

12) 이에 대한 이야기는 KBS 역사스페셜, 제36화 「신기전의 부활」을 참고하였다.

13) 朴趾源, 『熱河日記』, 「銅蘭涉筆」, “皇明崇禎十一年, 我國將李時英率兵五千, 入建州, 清人時英爲前行, 與明都督祖大壽戰於松山.”

그런데 인용된 예문에서 박지원은 이시영이 1638년 건주로 갔다고 밝히고 있지만 『조선왕조실록』에는 이시영이 구련성에 도착한 것은 1638년 9월 12일<sup>14)</sup>이다. 1638년 9월 18일에는 송산참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sup>15)</sup> 그리고 이공익은 이시영과 부장 유림이 통원보에 왔지만, 馬將이 병사들의 기일에 늦었다고 곧바로 물러나 돌아가라고 명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sup>16)</sup> 김경선은 이 부분의 출전을 야사라고 밝히고 있다.<sup>17)</sup> 『조선왕조실록』과 박지원, 김경선이 인용한 야담은 서로 파병된 시기가 다르다. 실제로 청나라가 전쟁을 진행하기 위하여 정식으로 파병을 요구한 것은 1639년 11월이었다. 이때 인조는 도승지 李基祚와 다른 사람들을 청나라 칙사의 관소로 보내니 칙사가 파병에 대한 말을 하였다.

황제가 “馬兵은 과연 전투용으로는 합당하지 않다. 水軍 6천 명만 12개월의 군량을 준비하여 전함을 갖추어서 얼음이 풀리는 2월까지 安州 등지의 해변에 모이게 하라.”고 하였다. 그러면 황제가 差官을 보내 인솔해 가게 할 것이다. 糧餉은 내년 貢米 1만 包를 실어 보내어 三叉河의 小陵河와 大陵河 사이에 정박

- 
- 14) 『仁祖實錄』 卷37, <1638년(인조 16) 9월 12일>, “총독사 이시영이 구련성에 도착하다. 摠督使 李時英이 九連城에 도착하였는데, 황해도 군사가 길에서 많이 도망쳤으므로 義州에서 入防하는 황해도 군사로 숫자를 채워가지고 갈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조선왕조실록』은 고전번역원 번역을 참조하였다. 이하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 15) 『仁祖實錄』 卷37, <1638년(인조 16) 9월 18일>, “李時英·柳琳·林慶業 등이 松山站에 있으면서 치계하였다. “신들이 鳳凰城에 도착하니 馬夫達 등이 나와서 힐책하고, 또 陳奏하도록 주장한 자가 누구냐고 물었으며 ‘너희 나라 군사는 이제 쓸 데가 없으니, 도로 거느리고 가라. 근일에 查官을 보낼 것이다.’” 하였습니다.”
- 16) 이공익, 『국역 연려실기술』 VI, p.281, “於是遣上將李時英, 副將柳琳等, 到通遠堡, 馬將責以師期遲悞, 卽令退歸.”
- 17) 金景善, 『燕輶直指』 卷2, 「出疆錄」, <12월 7일>, “野史에, ‘1638년(송정 11, 인조 16) 우리나라 장수 李時英이 군사 5000명을 거느리고 建州에 들어갔는데, 청인은 그를 위협하여 앞세워 가서 명 나라 都督 조대수와 송산에서 싸우게 하였다.’” (고전번역원 번역을 인용하였다.)

시키도록 하라.<sup>18)</sup>

청나라가 조선에서 기병 대신 원한 것은 水軍과 군량이었다. 마침내 조선 군사가 출정하게 되자 청나라 장수들은 淸川江 서쪽 해안에 모여서 舟師의 上將과 副將에게 배를 진열하게 하고 살펴보았다.<sup>19)</sup> 이윽고 1640년 4월 임경업이 5,000여 명의 수군을 거느리고 蓋州 부근에 이르자 3국의 전함이 서로 대치하게 된다.<sup>20)</sup>

한편 1640년 7월에는 이미 출전한 병사 중에 4,600여 명이 조선으로 돌아왔다. 수군의 副將으로 있던 이완이 봉황성에서 치계를 올렸다.<sup>21)</sup> 이때 임경업은 정포병으로 짐작되는 1,500명을 거느리고 蓋州에서 海州로 갔는데, 이때 정포병 이사룡도 임경업을 따라 해주로 간 것으로 보인다. (개주와 해주의 지도는 별첨한다.)

### 3. 이사룡의 운명

금주성은 전략상 요충지였으며, 전투는 명청 전투의 중요한 분기점이었다.<sup>22)</sup> 명나라 총병 洪承疇는 만주족을 격퇴시키며 13만 명을 이끌고

18) 『仁祖實錄』 卷39, <1639년(인조 17) 11월 25일>, “帝以馬兵果不合於戰用, 唯水軍六千名, 齎十二朔糧, 具舡趁二月解水, 會于安州等地海邊, 則帝當送差率去. 糧餉則以明年貢米一萬包載送, 到泊於三叉 小陵 大陵河之間.”

19) 『仁祖實錄』 40권, 1640년(인조18년) 4월 1일, 기사참조.

20) 洪世泰, 『柳下集』, 「金永哲傳」(박희병·정길수 편역,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돌베개, 2007, pp83. 참고.)

21) 『仁祖實錄』 卷41, <1640년(인조 18) 7월 29일>, “7월15 일에 諸軍 및 船格 4천 6백 51명을 거느리고 上將 林慶業과 함께 蓋州를 출발하여 귀국하는데, 경업은 군졸 1천 5백 명을 거느리고 海州로 향했습니다.”

22) 『仁祖實錄』 卷42, <1641년(인조 19) 1월 27일>, “임경업이 돌아와 서울에 도착하였다. 상이 인견하여 위로하고 이어 中原의 수비 상태를 하문하니, 대답하였다. ‘祖大壽가 바야흐로 閣老와 혼인 관계를 맺어 여러 성을 수비하는 자가 모두 조씨의 족속들인데, 錦州의 군병이 10만, 山海關은 30만 명 이라고 합니다.’”

금주성으로 가고 있었을 때였다. 이사룡은 1641년 5월에 금주성 전투에서 운명하는데,<sup>23)</sup> 박지원은 인평대군의 말을 인용하여 이사룡이 운명하는 과정과 이에 대한 명나라 군사의 반응을 묘사하고 있다.

조선 군사 중에 李士龍은 星州 사람으로서 홀로 의리 때문에 차마 총에 탄환을 제지 못하고 무릇 3번을 쏘아도 아무도 상하지 않았던 바 이는 본국의 심정을 밝히려 함인데 청인이 이것을 깨닫고 드디어 이사룡을 베어 조리를 돌렸다.<sup>24)</sup>

조대수 군사들이 바라보더니 모두 큰 소리로 슬프게 울었다. 조대수가 이에 ‘朝鮮義士李士龍’이라고 써서 들어 올려 이시영의 군대를 풍자하였다. 지금 성주 玉川 위에 忠烈祠가 있으니, 곧 이사룡을 제사 지내는 곳이다. 진실로 황제로 하여금 사룡의 이름을 듣게 했다면 특별히 시호를 주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나는 송산을 지나면서 글을 지어 조문한다.<sup>25)</sup>

박지원은 명나라의 군사조차도 이사룡의 죽음에 크게 통곡했다고 자못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즈음 청 태종이 6일 만에 심양에서 松山으로 와서 전장을 지휘했을 정도로 전세가 위급했다는 것도 이사룡이 극한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던 원인으로 보인다. 이사룡 사건 이후 전쟁은 더욱 격렬하게 진행되었다. 다음 기록을 보면 이사룡이 운명한 직후인 1641년 7월 당시 조선 조총 부대가 戰場에 임했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 
- 23) 『仁祖實錄』 卷42, <1641년(인조 19) 5월 4일>, “領兵將 柳琳이 錦州衛에 도착하여 서로 전투가 벌어졌을 때, 星州의 군사 金得平은 대포를 쏘아 맞히지 못했고, 李士龍은 포탄을 제거한 채 空砲를 쏘았는데, 監胡가 알고 매우 노하여 이사룡은 참수하고 김득평은 杖刑에 처했다고 한다.”
- 24) 朴趾源, 『熱河日記』, 「銅蘭涉筆」, “土兵李士龍, 星州人也, 獨義不入丸, 凡三發無傷, 欲以明本國之心也, 清人覺之, 遂斬士龍以徇.”
- 25) 朴趾源, 『熱河日記』, 「銅蘭涉筆」, “祖軍望見皆大哭, 大壽乃大書上曰: ‘朝鮮義士李士龍’, 以風時英軍, 今星州玉川上, 有忠烈祠, 卽士龍俎豆之所, 苟使皇帝聞士龍名, 合當特予美諡, 余過松山, 作文以吊士龍之魂.”

右眞王이 대대적으로 원병이 온다는 말을 듣고 우리나라의 砲手 4백 명을 선봉으로 삼아 南山을 굳게 지키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 군대를 두 隊로 나누어 일대는 塔山의 귀로를 방비하게 하고 일대는 금주로 들어오는 길을 차단하게 하였으며, 陣中에 기와집을 지어 오래 머무를 계획임을 보였다. 이때 우리 군대는 이미 여러 달을 露宿하여 병들고 부상하지 않은 자가 없었고 죽는 자가 속출하였다. 조정에서 듣고 본도로 하여금 恤典을 거행하게 하였다.<sup>26)</sup>

조선의 정포 부대는 금주성 근처에 있는 남산을 지키면서, 퇴각하는 군사와 지원군을 막기 위해 선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발에 섰다는 것으로 보아 명나라의 기마병을 제압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사룡이 5월에 운명하고 나서 8월이 되었을 때 소현세자도 금주 지역을 방문했다. 이때의 상황을 김정선은 『瀋館日記』에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다.<sup>27)</sup>

1641년 전황보고에 의하면 조선 총병은 20여 명이 전사했으며 말은 거의 다 죽었다고 한다. 군량은 3,300여 석, 화약 970여 근, 鉛丸 53,200여 발을 사용하였다고 한다.<sup>28)</sup>

명나라의 피해도 컸다. 명나라 군사가 금주성에서 물러날 때 기병은

26) 『仁祖實錄』 卷42, <1641년(인조 19) 7월 12일>, “右眞王聞援兵大至, 以我國砲手四百人爲先鋒, 堅守南山. 分其軍爲二隊, 一以防塔山之歸路, 一以遮錦州之來路, 作瓦家於陣中, 以示久住之計. 時, 我軍露宿已累朔, 無不傷病、死者相繼. 朝廷聞之, 令本道舉行恤典.”

27) 金景善, 『燕轅直指』 卷2, 「出疆錄」, <1832년(순조 32) 12월 7일>, “당시 조대수가 금주성 앞에 화포로 무장하자 청인이 접근하지 못했다고 한다. 청인이 5리 쯤 떨어진 夾城을 포위한 지 1년이 넘었고 조선 장군 柳琳이 그 동편에 있었다고 한다. 소현세자는 시내를 2번 건너니, 청인과 몽고군이 연합하여 松山을 7리 쯤 떨어진 남쪽에 두고 진을 치고 있었다. 청인이 송산성을 향하여 포를 쏘자 송산성에서 대응하는 포를 쏘고 소현 세자는 송산에서 서쪽으로 10리 떨어진 곳에 청 태종을 따라 진을 옮겼다.” (고전번역원 번역물을 정리하였다.)

28) 『仁祖實錄』 卷42, <1641년(인조 19) 9월 21일>, “是役也, 我軍死者二十餘人, 馬斃者十八九, 所費糧餉三千三百餘石, 火藥九百七十餘斤, 鉛丸五萬三千二百餘箇.”

송산보로 들어갔고, 보병은 배를 타고 도주했지만, 전투에서 명나라 군인 53,000여 명이 죽었다고 한다.<sup>29)</sup>

그러나 이사룡이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지켜주려고 했던 조대수는 결국 항복하여 청태종의 휘하로 들어간다. 심지어 명나라 정복에 앞장섰다는 공이 인정 되어 1631년 세워졌던 패루도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사룡은 이국땅에 용병으로 가서 배청송명이라는 이념을 실현하려다가 희생되었지만 명나라가 멸망하자 허망하게 끝나고 말았다.

#### 4. 이사룡에 대한 시각

박지원은 이사룡이 명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총알을 빼고 총을 쏘았다고 하였지만 이공익은 전투하기 꺼려했던 조선 병사를 대신하여 이사룡이 희생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함께 파병했던 조선 병사들의 분위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 군사들이 명나라 군사와 전투를 피하기 위하여 소극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흔적은 곳곳에 나타난다. 1640년 임경업이 蓋州로 나가고 나서였다. 이사룡이 운명하기 거의 1년 전쯤인 1640년 7월에 심양에 있던宰臣 김신국 등이 급히 보고한 내용을 보면 조선 군대는 배를 타고 전장터로 가고 있었지만 수군이 전진하지 않았고 양식을 遼下口에 내려놓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30)</sup> 이 기록을 보면 조선 군대는 명나라와 청

29) 朴趾源, 『熱河日記』, <7월 18일>, “太宗親率軍, 至高橋東, 令貝勒多鐸設伏, 吳三桂王樸敗奔至高橋, 伏兵四起, 僅以身免, 是役也, 殺明兵五萬三千七百, 獲馬七千四百, 駝六十, 甲冑九千三百, 自杏山南至塔山, 赴海死者甚衆, 漂蕩如鷺, 清軍誤傷者, 只八人, 餘無挫云, 嗚呼, 此所稱松杏之戰也.”

30) 『仁祖實錄』 卷41, <1640년(인조 18) 5월 4일>, “그 다음날 문정 등이 황제의 명을 전하여 이르기를 ‘林慶業 등의 수군이 전진하라고 해도 전진하려 하지 않고, 쌀부대를 遼河口에 내리라고 해도 가려고 하지 않으니, 이것이 무슨 의도인가?’ 하니, … 范文程이 말하기를 ‘5월 그믐날 수군이 한선을

나라 사이에서 전투의 행방을 저울질하며 전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훗날 송시열도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sup>31)</sup>

이보다 앞서 1641년 4월 12일에도 청나라 아문에서는 역관 정명수를 통하여 심양에 있던 소현세자에게 조선 군대가 명과 서로 내통하고 있다고 문제를 삼았다.<sup>32)</sup>

「김영철전」에도 이 사건과 부합하는 내용이 있다. 여기에서는 임경업이 만주어와 중국어에 능통한 김영철을 명나라에 첩자로 보냈다. 김영철이 명나라 군대로 가지고 간 편지에는 서로 총을 쏘지 말자는 내용이 있었다.<sup>33)</sup>

이미 해상 전투에서부터 조선 병사는 명나라 병사에게 총을 쏘지 않으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서로 총을 쏘지 않겠다는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다. 명나라 해군이 조선 해군에게 다가오자, 놀란 조선 병사들이 총을 쏘는 바람에 무산되고 말았다.

그리고 얼마 후 조선의 정포부대는 심양에 머물렀는데, 1641년 봄에 유립은 포수를 이끌고 조선의 포수 1천 명과 기병 5백 명, 말구종 5백 명을 이끌고 심양에 있었다. 얼마 후 5월이 되자 청나라에서 조선 포수

만났는데도 발포하지 않았고, 발포하더라도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였으며, 그 앞에 있던 배도 또한 서로 구해 주지 않았다. 또 배 3척은 표류해 가버렸다고 평계하였는데, 漢人이 빈 배 한 척에다 조선 사람 2명을 실어 보냈다. 한선 38척이 또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도 그들과 맞아 싸우지 않았으니, 이는 곧 조정의 분부로 인하여 한인과 서로 내통하는 것이 아닌가?”

- 31) 宋時烈, 『宋子大全』 卷19, 「疏」, 「大義를 논하면서 尹拯의 일을 진달하는 소」, <정묘년 1월 28일>, “蓋州의 싸움 때는 故相 신 李滄과 林慶業이 사람을 시켜 물길로 은밀히 명나라 장군에게 통보하여 중국 조정에 이 사실을 전달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중국 사람들이 더욱 우리 조정의 心事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 32) 정길수 외, 『역주 소현심양일기』, 민속원, 2008, p.174, “旅順港에서 멀리 바라보니 분간이 되지 않는 배 3척이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가고 있는데 조선의 배인 듯한데 무슨 일로 왕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국에 문의하길 바랍니다.”
- 33) 洪世泰, 『柳下集』, 「金永哲傳」 (박희병·정길수 편역, 앞의 책, pp.83-84. 참고.)

5백 명을 요구한다.<sup>34)</sup>

이상의 기록을 보면 파병된 조선 군대는 금주 전투 직전에도 이미 전쟁을 꺼렸던 것을 알 수 있다. 이공익은 금주 전투에서 청나라 병사들이 규율을 잡기 위해 이사룡을 희생시켰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다음은 이에 대한 내용이다.

유림은 이 군중에서 병이 심하다고 칭탁하고 굳게 누워 군중의 일은 부장에게 맡기는 한편 비밀히 군중에 명령하여 탄환을 빼어 총을 쏘게 하였다. 처음에는 청나라 사람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조금 뒤에 탄로되자 하졸 한 사람을 죽였을 뿐이고 유림은 책망하지 않았다.<sup>35)</sup>

유림의 특별한 명령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조선 병사들이 조총을 쏘지 않은 것은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명령에 의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이 기록은 소론이었던 이공익(1736~1806)이 조선 후기 ‘野史의叢書’<sup>36)</sup>라고 불리는 『연려실기술』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이공익은 개인 기록이기 때문에 官方기록과 달리 자유롭게 쓸 수 있었고, 이사룡도 크게 부각시키지는 않을 수 있었다. 이 논의는 소론의 영수였던 남구만의 기록에서도 언급된 것으로 이공익이 남구만의 기록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sup>37)</sup> 다만 이 논의는 남구만과 이공익 이외에는 크게 확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조정에서 춘추의리에 입각하여 이사룡을 부각시킨 것

34) 이공익, 『국역 연려실기술』 VI, p.283.

35) 이공익, 『국역 연려실기술』 VI, p.595, “琳在軍稱病篤堅臥, 委軍事於副將, 且密令軍中, 發砲去丸, 清人初不知覺, 俄而事露, 戮下卒一人, 而亦不以責琳.” (번역은 고전번역원 사이트에 번역된 번역물을 인용한다.)

36) 본고에서 인용하고 있는 ‘野史의叢書’는 신병주 교수가 이공익의 『연려실기술』을 정의하여 쓴 말이다. (네이버 (<https://www.naver.com>) (검색어: 이공익))

37) 南九萬, 『藥泉集』 卷17, 「神道碑銘」, 「統制使柳公神道碑銘(庚午)」, “公在軍稱病篤, 堅臥委軍事於副將, 且密令軍中發砲去丸, 清人初不之覺, 俄而事露, 戮下卒一人, 而亦不以責公, 公因稱病轉甚, 清人許以他將代還, 上引見慰諭, 賜貂帽, 拜摠戎使.”

과 다르게 주장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사룡을 추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당색과 크게 연관이 없이 남구만이나 숙종 때인 1681년 조지겸, 1686년 이현일도 국왕에게 글을 올려 지지했다.<sup>38)</sup> 이사룡에 대한 이야기는 비슷한 유형의 이야기가 반복 생산되었다고도 할 수 있었다. 특히 조선 후기 때 김려(1766~1822)는 이사룡이 성에 오르다가 아래에 따라 오르고 있는 청나라 병사들을 향하여 총을 쏘 살해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sup>39)</sup> 이사룡의 배척 이미지를 독특하게 표현하였다.

### III. 춘추대의의 화신으로 부각과 후손에 대한 배려

#### 1. 춘추대의의 부각

이사룡의 유체는 결국 고향 星州로 돌아왔다. 그 후 남구만은 嶺南御史로 있으면서 현종에게 이사룡을 추증하자고 건의한다.

“삼가 바라건대 해조에 특별히 명하여 적절한 표창과 추증을 가하고 그 자손들을 구휼하여 風教를 세우소서.” 하니, 조정에서 마침내 그 아들에게 萬戶 벼슬을 내렸다.<sup>40)</sup>

38) 이 논문의 섬세한 부분은 여러 선생님들의 지적에 힘입었다는 것을 밝힌다. 지면의 통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특히 조지겸과 이현일, 송시열의 「砲手李士龍傳」에 대한 언급은 논지를 전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39) 金鏞, 『濶庭遺藁』 卷9, 「丹良稗史」, 「砲手李士龍傳」, “士龍每放砲, 輒去丸不中, 已而攻城, 令數胡護一砲手爲前, 作雲梯薄城, 城上人不能敵, 諛曰朝鮮砲手至矣, 從城上呼曰: ‘朝鮮人爾忘神宗皇帝罔極之恩耶’, 哭聲動天, 士龍遂倒夾砲, 從腋下放丸, 清兵亂曰: ‘戒城上砲’, 士龍連放三, 所殺傷無計, 清兵始覺之, 引出將尙之, 士龍笑曰: ‘吾殺狗奴亦多矣, 死無恨矣’, 清主壯其節, 扛屍置淨處, 揭一金字牌曰大明義士李士龍, 城上人望之皆哭.”

40) 南九萬, 『藥泉集』 卷4, 「年譜」, “伏乞特命該曹, 量加褒贈, 恤其子孫, 樹立風聲, 朝廷遂官其子萬戶.”

이때 남구만은 이미 삼학사에게 錄勳을 주었고, 청나라가 조선 문제에 간섭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사룡을 追贈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이때 남구만은 이사룡의 추증을 건의하면서 이사룡의 말도 대변한다.

중국 명나라는 부모의 나라이니 내 어찌 차마 부모를 저버리고 그 나라 사람을 죽이겠는가.<sup>41)</sup>

이사룡의 목소리는 남구만이 상상하여 기록한 것이다. 이사룡의 희생은 단순한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다. 점차 세월이 흐르자 그 위상이 높아진다. 심지어 송시열은 이사룡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洪翼漢 등 三學士와 權順長 등 五儒生의 죽음과 砲手 李士龍의 죽음은 역시 春秋大義를 빛내기에 충분했습니다.<sup>42)</sup>

송시열은 이사룡에 관한 기사를 여러 번 언급한다. 이어 1673년 현종(1641~1674)은 이사룡을 추증한다.

“이사룡은 먼 지방의 미천한 군졸로서 天下를 위해 大義를 지킬 줄 알았으니, 千古에 드문 바입니다. 일찍이 先朝에서는 그 아들에게 邊將을 除授하였는데, 지금 듣건대, 子孫으로 現存하는 자가 있다고 하니, 本道로 하여금 訪問하여 특별히 食物을 주도록 하고, 따라서 復戶하여 軍役을 정하지 말도록 하면, 人心을 激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本道에 명하여 食物을 주고, 따라서 復戶하게 하였으며, 대대로 軍役을 정하지 말도록 하였다.<sup>43)</sup>

41) 南九萬, 『藥泉集』 卷4, 「年譜」, “中國者, 父母之國也, 吾何忍背父母殺其國人乎?”

42) 宋時烈, 『宋子大全』 卷19, 「疏」, 「大義를 논하면서 尹拯의 일을 진달하는 소」, <정묘년 1월 28일>, “至於洪翼漢等三學士, 權順長等三儒生之死, 及砲手李士龍之死, 亦足以有光於春秋之義矣.”

43) 『肅宗實錄』 卷11, <1681년(숙종 7) 1월 30일>, “士龍以遐方賤伍, 能知爲天下守大義, 千古所罕有, 曾在先朝, 除其子邊將矣. 今聞其子孫, 猶有存者, 令本

현종이 재위에 있었던 때는 명나라의 잔족세력이 저항한, 三藩의 난이 평정되지 않았던 시기였다. 청나라가 내란에 시달리고 있었을 때 조선에서는 여전히 명나라를 숭배했고 청나라를 배격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있었다. 이사룡은 이런 조정의 분위기에서 부각될 수 있었다.

이사룡이 춘추대의의 화신으로 부각되었는데, 정조는 춘추대의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一部陽秋 한 부의 춘추를  
三復寤歎 반복해 읽고 탄식하네<sup>44)</sup>

‘한 부의 춘추’<sup>45)</sup>에서 『춘추』는 주나라를 높이고, 왕실을 옹호하며, 주변의 소수 민족을 배척하는 사상이 주제로 흐르는 책이다. 중국이 만주족 통치 아래에 놓이게 되자 정조는 이사룡과 이성량이 동국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명나라를 그리워하였다. 정조가 『춘추』를 읽고 탄식한 것은 병자호란의 國恥를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조는 이사룡을 배척송명의 상징인물로 생각하고, 춘추의리로 이사룡을 부각시키면서 직접 제문도 써서 올린다. 국왕이 한 명의 병사에게 글을 올린 것은 파격적인 것이다.

豈係地分 어찌 지위와 신분에 관계되리오  
因人而高 그 사람 자신으로 인하여 높아지는 법일세<sup>46)</sup>

道訪問, 特給食物, 仍令復戶, 勿定軍役, 則可以激勵人心矣.’ 上命本道給食物, 仍爲復戶, 世世勿定軍役.”

44) 正祖, 『弘齋全書』 卷25, 「寧遠伯李成梁致祭文」. (고전번역원 번역 참조. 논의를 위하여 수정한 곳이 있다. 이하 언급하지 않는다.)

45) 한 부의 춘추: 皮裏春秋라는 말이다. 겉으로可否를 말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褒貶하는 것을 말한다. (고전번역원 각주 참조.)

46) 正祖, 『弘齋全書』 卷24, 「贈星州牧使李士龍致祭文」.

정조는 이사룡이 보여준 태도에 주목하고 있다. 정조는 전장의 현장에 있는 이사룡의 모습도 상상하여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汝維血視    그대가 눈을 부릅뜨고 보며  
 礮而不丸    火器에 쏘면서 탄환을 넣지 않았으니  
 蕃酋懾睨    칭나라 장수가 성내며 흘겨보고  
 漢卒吽譟    명나라 군졸이 크게 소리 지르며 술렁이네.  
 白刃如麻    흰 칼날이 삼대와 같이 밀집하여  
 戎毒斯逞    오랑캐의 독을 이에 드러내었으니<sup>47)</sup>

여기서 정조는 이사룡이 탄환을 재지 않았다는 것과 칭나라 장수가 분노했으며 명나라 병사가 감동했다고 노래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박지원이 성위에서 명나라 병사들이 통곡했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며 남인 이공익이 소극적인 대처로 처형당했다는 입장과 다른 것이다. 정조의 입장과 이공익의 시각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후손에 대한 배려

이미 숙종은 이사룡의 자손을 찾아내어 군역을 면제시켜주었다. 이어 정조도 이사룡의 후손들까지도 찾아내어 벼슬을 내리게 한다. 다음은 이사룡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러나 신분과 문벌이 미천하여 아직까지도 표창하는 은전을 빠뜨리고 있으니, 어찌 風教를 세우고 彝倫을 인도하는 뜻이겠는가. 성주의 포수 이사룡에게 특별히 星州 牧使를 증직하고, 이어 지방관으로 하여금 그 고을에 정표하도록 하라. 또한 그 후손 가운데 祿仕를 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즉시 軍門에 調用하고 보고하도록 하라.<sup>48)</sup>

47) 正祖, 『弘齋全書』 卷24, 「贈星州牧使李士龍致祭文」.

48) 正祖, 『弘齋全書』 卷34, 「教」 5, 「星州礮手李士龍贈職旌里教」.

정조는 다시 이사룡을 부각시켰다. 그리고 정조는 이사룡을 詩로써 노래하기도 했다.

伽倻之野 가야의 들에  
 巫陽招招 무양이 혼령을 부르네  
 祠以侑之 사당에 제사를 지내어 흠향하길 권하니  
 山藪溪毛 산나물과 물가의 채소를 갖추었네  
 既廩厥後 이미 그 후손에게 녹을 주고  
 迺宣華額 이에 빛나는 편액을 내렸으니  
 我詩肆好 나의 시가 이에 좋은지라  
 風茲凡百 이 못사람을 일깨우네<sup>49)</sup>

1793년(정조 17)~1798년(정조 22) 사이에도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다.<sup>50)</sup> 심지어 정조는 1796년(정조 20)에는 총렬사에서 청나라 연호를 써서 이사룡에게 제사지낸 관원까지 처벌한 적이 있다.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으니 제사를 다시 지내주도록 하라” 禮房承旨 및 香室의 관원을 파직하고, 관찰사는 녹봉 3등을 감하도록 하라. 제문은 고쳐 써서 게시하도록 하라.<sup>51)</sup>

정조는 이사룡에게 제사 지낼 때 청나라 연호를 쓰지 못하게 할 정도로 엄격하게 이사룡의 배청의식을 존중해 주었다.

정조가 이사룡에게 벼슬을 증직하고 후손에게 벼슬을 내려 주면서 이전보다 특이한 말을 한다.

我朝의 명장으로는 먼저 충무공을 손꼽게 되지만 군졸 출신으로서 천하에 이름난 사람은 또한 오직 이사룡일 것이다. (중략) 더구나 작은 나라의 군졸로서

49) 正祖, 『弘齋全書』 卷24, 「祭文」, 「贈星州牧使李士龍致祭文」.

50) 고전번역원 사이트 참조. (검색어: 이사룡)

51) 『正祖實錄』 卷45, <1796년(정조 20) 9월 4일>, “教曰: ‘與不祭無異, 更爲致侑.’ 仍命禮房承旨及香室官罷職, 道臣越俸三等, 祭文使改書揭之”

명나라를 위하여 의리를 지켜 용맹함을 보여 주어 걸출하게 우리나라의 밝은 빛이 되었는데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그러나 신분과 문벌이 미천하여 아직 까지도 표창하는 은전을 빠뜨리고 있으니, 어찌 風教를 세우고 彝倫을 인도하는 뜻이겠는가!<sup>52)</sup>

정조는 이사룡을 이순신과 대등하게 올려놓고 평가했다. 국란의 시기 때 민족과 영토를 지킨 인물 이순신과 이사룡을 같은 반열에 놓았다는 것은 정조가 춘추대의를 구현한다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시했다는 것을 말한다.

#### IV. 결론

숙종(1661~1720)과 영조 때 이사룡은 크게 부각된다. 공교롭게도 숙종 시대에는 당쟁으로 정국이 흔들렸는데, 1680년 남인이 실각하고 서인이 등용된 경신환국, 1689년 장희빈이 등장하여 남인이 집권한 기사환국, 1694년 장희빈의 폐비와 서인이 재집권한 갑술환국이 있었다. 정조가 이사룡을 크게 부각시키려고 한 것은 시대적인 상황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정조시기는 천주교와 서양서가 들어왔던 시기로 남인들 사이에 천주교가 널리 퍼졌다. 정조는 남인이 대거 포진한 시파를 배려하기 위하여 벽파의 문체 문제를 지적하여 권력의 균형을 취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춘추』에 입각하여 춘추대의로 왕실의 안정과 정국을 주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1791년에는 패관잡기를 엄금했다.<sup>53)</sup> 문체반정은 사상을 통제하기도 했다. 이처럼 왕실이 내부와 외

52) 正祖, 『弘齋全書』 卷34, 「教」 5, 「星州殿手李士龍贈職旌里教」, “我朝名將, 指先屈於忠武, 而以軍伍名聞天下者, 亦惟李士龍是已, … 況以小國之軍伍, 爲天朝秉義立愷, 傑然爲東國之耿光, 而坐於人微地賤, 尙闕表章之典, 豈樹風迪彝之義.”

53) 『正祖實錄』 卷33, <1791년(정조 15) 10월 24일>, “내가 일찍이 筵臣에게 이르기를 ‘서양학을 금지하려면 먼저 稗官雜記부터 금지해야 하고 패관잡기

부 문제로 어려워지자 춘추대의를 강조하며 왕실의 존엄을 높이려는 과정에 이사룡 같은 인물이 더욱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1796년(정조 17)에 정조는 이사룡을 더욱 높여 성주 목사로 증직하고 후손들 중에 벼슬할 만한 사람을 수용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 시기 이성광도 춘추대의를 빛낸 인물로 부각시킨다.

조선 왕조 시대에 국왕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은 일관되게 춘추대의를 세워왔지만 정조 때 이사룡을 춘추대의의 화신으로 가장 높게 부각시킨 이후 그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쟁점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사룡의 義擧에 대한 묘사 중에 박지원의 묘사와 이공익의 묘사가 對比된다. 박지원은 춘추대의의 구현자라는 시각을 가지고 이사룡이 자발적으로 총탄을 빼고 총을 쏘다가 처형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심지어 금주성에 있는 명나라 군사들이 깃발에 이사룡이 義士라는 것을 써서 알리면서 통곡했다고 劇적인 장면을 살리며 묘사하고 있다. 노론 벽파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박지원이 정조와 유사한 시각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남구만과 이공익은 춘추대의를 구현하려는 시각이 약화되어 전투에 참여하고 있던 精砲 부대 대원들이 총알을 빼놓고 쏘는 것을 응징하기 위하여 청나라에서 이사룡을 희생양으로 처벌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당파에 따라 비슷하면서도 다른 시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춘추대의의 명분은 조선 왕조의 권위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국왕과 집권 세력들 사이에서 중요한 명분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고, 이사룡은 이런 시각에 의하여 상징적인 인물로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사룡이 목숨을 바쳐 보호하려고 했던 명나라 장수 조대수는 청나라에 항복하여 높은 관직에 올라가 패루가 보존되었고, 이사룡은 비록 운명하였지만 왕조 내내 춘추대의의 화신으로 부각된 점은 조선과

를 금지하려면 먼저 明末清初의 문집들부터 금지시켜야 한다.’ 하였다.[予嘗語筵臣曰: ‘欲禁西洋之學, 先從稗官雜記, 禁之. 欲禁稗官雜記, 先從明末清初文集禁之.’]”

청나라에서 역사인물의 평가가 자신들의 현실 정치의 이익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보인다.

본고에서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과 『열하일기』에 언급된 내용을 비교하면서 과병 시기가 다른 점, 인술한 장수가 서로 다른 점 등은 명확하게 고증하지 못하였다.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별첨]



[그림 2] 西北彼我兩界萬一覽地圖(1830년).

(출처: 2015년 서울역사박물관 전시)

<參考 文獻>

金景善, 『燕轅直指』.

金 鑣, 『溇庭遺藁』.

南九萬, 『藥泉集』.

朴趾源, 『熱河日記』.

徐慶淳, 『夢經堂日史』.

宋時烈, 『宋子大全』.

李 滄, 『松溪集』.

正 祖, 『弘齋全書』.

洪大容, 『湛軒集』.

『國朝寶鑑』.

『朝鮮王朝實錄』.

「西北彼我兩界萬一覽地圖(1830)」, 2015년 서울역사박물관 전시.

『皇輿遐覽』, 북경대학교도서관 소장본.

김윤조, 『역주 과정록』, 태학사, 1997.

박희병·정길수 편역, 『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돌베개, 2007.

안대회, 「조선 후기 燕行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燕行使를 보내는 送序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19집, 한국실학학회, 2010.

이가원, 『열하일기』, 대양서적, 1975.

이공익, 『국역 연려실기술』.

정길수 외, 『역주 소현심양일기』, 민속원, 2008.

한명기, 『광해군』, 역사비평사, 2000.

閻崇年, 『明亡清興六十年』, 中華書局, 2008.

曾 磊, 「明清松錦之戰中朝鮮兵的作用」, 『史學月刊』, 河南大學 河南省歷史學會, 2013.

KBS 역사스페셜, 「조충, 조선의 명운을 바꾸다」, 「신기전의 부활」.

구글 (<https://www.google.co.kr>)

고전번역원 (<http://www.itkc.or.kr/itkc>)

네이버 (<https://www.naver.com>)

바이두 (<http://www.baidu.com>)

### Abstract

*The change of the confucian thought of righteousness(春秋大義)  
realized by Lee, Sayong(李士龍) / Kim Dong Suk\**

When the Joseon Dynasty send an envoy to Qing Dynasty, Joseon Dynasty envoy usually talked about LeeSayong(李士龍) who took part in a JinZhouWar[錦州戰鬪] and died in 1941 during going through this war area.

During the JinZhouWar[錦州戰鬪], LeeSayong(李士龍) who was in a Joseon Dynasty firelock[鳥銃] troops to help Qing Dynasty, fired firelock without bullets in order to protect Min Dynasty soilder because he was rooted in confucian thought of righteousness[春秋大義]. At last his acting that fire firelock without bullets was found by Qing Dynasty soilders. So he was put to death by Qing Dynasty soldier.

This story was well known among Joseon Dynasty scholar for a long time. He was represented as a embodiment confucian thought of righteousness[春秋大義]. But some scholars among the faction of NamIn(南人), this phenomenon was differently explained from the faction of NoRon(老論). For example, Namguman(南九萬) and LeeKynlk(李肯翊) maintained their opinion that LeeSayong(李士龍) was the sacrificial victim because at that time most of Joseon Dynasty soldiers who where in a JinZhouWar[錦州戰鬪] did not want kill Ming Dynasty soldiers. Because of this accident Qing Dynasty need a sacrificial lamb to encourage the other soldiers. So LeeSayong(李士龍) was chosen.

It is said that Joseon Dynasty use the confucian thought of righteousness

---

\* Visiting professor, Sung Kyun Kwan Univ. / tongxi@daum.net

[春秋大義] as to control the power of their subject by using it, and LeeSayong(李士龍) was the representative of the confucian thought of righteousness[春秋大義].

It is also said that the Joseon Dynasty and Qing Dynasty' estimate for the their loyal retainer was closely related to their profit of political matters. So ZuDaShou[祖大壽] who is the ming general in JinZhouCheng[錦州城] and surrender to Qing Dynasty was get a prize to build Pai-Loo(牌樓), LeeSayong(李士龍) who is the Joseon soldier even though he is dead promoted and represented the symbol of the confucian thought of righteousness[春秋大義].

**【Key words】** LeeSayong(李士龍), the confucian thought of righteousness [春秋大義], JinZhouWar[錦州戰鬪], Namguman(南九萬), LeeKynIk(李肯翊)

투고일 : 11월 9일, 심사일 : 11월 23일, 게재확정일 : 12월 12일